



카페 카시오페아에서는 매달 다양한 공연이 열리며 영화감상회와 전시회 등도 진행된다.

커피 한잔도 좋지만 공연만 보고 가셔도 좋아요

‘아트카페-카시오페아’ 음악회·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 행사

매주 금요일 영화상영... 2월22일 ‘내 마음의 풍경’ 뮤지컬 공연

20대 수줍은 청년이 기타줄을 조율하며 공연을 준비중이었다. 눈을 지그시 감은 기타리스트는 긴장한 듯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자 청년은 조용히 기타 연주를 시작했다. 소박한 무대였지만 연주를 하는 젊은 기타리스트나, 소파 곳곳에 자유롭게 앉은 사람들이나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다.

카페를 차려자 싶었다. 45평 규모가 다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부담처 보기도 했다. 직접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냈다. 나라 요시토모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액자도 걸어두고, 여행 다니면서 구입한 빈티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가게를 꾸몄다.

이날 공연을 한 이는 ‘스타카토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정은준씨.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는 공연을 마쳤다.

카페 이름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거북이 카시오페아에서 따왔다. 거북이 카시오페아가 모모에게 길을 알려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듯, 카페 카시오페아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1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아트카페-카시오페아’(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었다.

커피숍이 들어설 것 같지 않은 외진 곳이였기 때문에 단순히 차만 마시는 공간으로는 길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책을 좋아하는 김씨는 자신이 읽었던 책과 추천받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카페 이곳저곳에 꽂아 두었다. ‘몬스터’, ‘바벨 2세’, ‘기생수’ 등 1000여권에 이르는 만화는 카

페의 자랑거리다. 첫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이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있다.

우연히 손님이 왔던 이들이 기타를 잡고, 피아노를 치며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공연했던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카시오페아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뮤지션들도 많아졌다. 한달에 1~2차례 꾸준히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밴드 ‘살랑’, ‘우물 안 개구리’, ‘바다프로젝트’, 남성 성악팀 ‘가객’, 재즈 팀 ‘SR 트리오’와 ‘스페이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카시오페아를 거쳐가며 식구가 됐다. 지금까지 카시오페아에서 열린 공연은 50여 차례에 이른다.

김재원(37)씨가 아내와 함께 카시오페아가 문을 연 건 지난 2009년 10월이었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김씨는 이윽한 2층 공간이 새 주인을 찾는다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의 풍경’ 전시회 모습

이머 연인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에는 뮤지컬 공연 ‘내 마음의 풍경’을 진행한다.

사진전도 열린다.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하씨와 손세양씨 등이 전시회를 가졌고 사진 동호회도 전시를 했다.

카시오페아같은 ‘무대’가 생겨나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도 많이 늘었다. 또 카시오페아같은 아트 카페를 차리는 이들이 생겨났다. 카시오페아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공간이다.

홈페이지(<http://www.cafecasiopea.com>)와 페이스북([facebook.com/cafecasiopea](https://www.facebook.com/cafecasiopea))에 매주 상영 영화와 콘서트 정보가 올라온다.

주인장 김재원씨는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도 초청해 좀 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히고 “우리 카페같은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겨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페 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다. 문의 062-511-3558.

카페 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다. 문의 062-511-3558. /글·사진=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수묵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

한국화가 설박 개인전, 2월26일까지 서울 송은아트큐브

주목받고 있는 나주 출신의 한국화가 설박(본명 박설)씨가 다음달 26일까지 서울 대치동 송은 아트큐브에서 개인전을 연다. 설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산수화에 현대적 조형감각을 조화시킨 수묵산수화 ‘어떤 풍경’ 연작을 선보인다.



‘어떤 풍경 2’

그는 삼목(三墨)을 먹인 화선지를 손으로 곱게 찢어 겹겹이 붙이는 풀라주 기법으로 머릿속의 풍경을 연출한다. 먹의 짙음과 옅음에 따라 원근과 산자락의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한국화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기법으로 작가의 개성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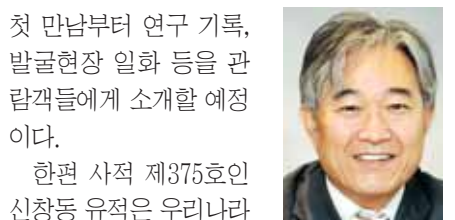
절제된 먹색과 섬세한 필치, 함축미, 상상력이 가미된 다양한 구도가 인상적이다. 그렇게 만든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구름 위에 솟은 산 봉우리와 다도해의 섬 풍경이 연상된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설박씨는 광주 비엔날레기념특별기획 디지털전 등 그룹전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해 중국 북경 798 예술구 ‘T Art center’ 초대전 등을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의 전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송은문화재단 공모에 선정돼 열게 됐다. 문의 02-3448-0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신창동 유적 특별전’ 연장 공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조현중 관장, 전시설명회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신창동 유적 사적지정 20주년 기념 ‘2000년전의 타임캡슐’ 특별전(3월31일)을 전시기간 중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특별연장공개한다.



조현중 관장

또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7시30분 1시간 동안 조현중 관장(사진)이 신창동 유적을 직접 설명하는 ‘조현중 관장과 함께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타임머신’ 전시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사적 제375호인 신창동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생산과 생활 그리고 무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복합유적이다. 발견된 유물의 질과 양에서 최초, 최고, 최대를 자랑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570-70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20년간 신창동 유적의 발굴조사와 연구에 매진한 조 관장은 신창동 유적과의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시금” 호남연구자협 호소

광주와 전남·북지역 한국학 연구자 7명으로 구성된 ‘한국 호남진흥원 설립을 위한 호남지역 연구자협의회’(이하 호연)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 호남지역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한국학호남진흥원’(가칭)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한국학 연구자 7명으로 구성된 ‘한국 호남진흥원 설립을 위한 호남지역 연구자협의회’(이하 호연)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 호남지역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한국학호남진흥원’(가칭)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호남지역 기초학문의 재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별 대학차원에서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록문화유산의 훼손·유출이 심각한데, 호남지역 기록문화유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연구할 수

도권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은 기관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0년간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을 지역균형발전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지원을 위한 법안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임시수장고 마련 및 수장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들은 또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지원을 위한 법안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임시수장고 마련 및 수장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향 김영언 상임부지휘자 데뷔 무대

31일 ‘위대한 베토벤’ 공연... 루드비히 건강 이유 공연 불참

진통을 겪었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새해 첫 공연을 갖는다.

서울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씨는 카셀 국립대학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2005년 귀국후 통일국제음악제 상주 오케스트라인 팀프 앙상블과 부천시향을 지휘하며 국내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후 부천시향과 꾸준히 무대에 올랐으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테헤란밸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05

당초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계약을 포기한 루드비히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신 지난해말 새로 영입된 김영언 상임부지휘자의 데뷔 무대가 됐다.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며 클래식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대한 베토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



김영언

김다미

악회는 ‘코리올란’ 서곡으로 문을 열어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협주곡을 김다미씨가 협연한다. 지난해 열린 하노버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그녀는 당시 경연에서도 이 곡을 연주했다.

이날학교,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현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연주자 과정에서 수학 중인 김씨는 서울시향,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피날레 곡은 ‘교향곡 7번’이다.

한편 오는 2월28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루드비히의 이임 연주회는 오는 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한편 오는 2월28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루드비히의 이임 연주회는 오는 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씩수날 출발)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페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페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